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CCTV 의무화

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차장 미끄럼 방지 등 안전 강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경사진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하준이법 역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당시 4세)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하준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또 시·군·구 등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차장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미세먼지 덮친 잿빛 광주 하늘
광주·전남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오전 광주 도심이 뿌옇게 둘러 쌓였다. 사직전망대에서 바라본 무등산 정상도 미세먼지에 가려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교전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1억 2000만원까지 확대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사망보상금도 공무원과 일치

교전 중 다친 군인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이 최대 1억원대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인재해 보상법은 장애 보상금 관련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다. 개선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1590만

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군인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 원에서 3억 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 3426만원에서 2억 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 2923만원에서 1억 2720만원이 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됐다.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초등생 장래희망 1위 운동선수
유튜버, '의사' 제치고 3위

1인 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의사'를 제치고 초등학생 장래 희망직업 3위로 등극했다.

10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운동선수' (11.6%)가 차지했다. 2007~2011년과 2013~2017년 1위였던 '교사'는 작년처럼 2위(6.9%)에 머물렀다.

유튜버와 BJ 등 크리에이터는 지난해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권에 진입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두 계단 상승하며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5.7%)로 올라섰다. 의사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4위(5.6%)로 밀려났고, 이어 5위 조리사(4.1%) 등의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0
해질녘 17:21
달뜨기 16:45
달지기 06:10

뿌연 하늘

구름 많고 낮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7/13	보성	구름많음	1/14
목포	구름많음	9/12	순천	구름많음	4/16
여수	구름많음	9/15	영광	기름흐리고비	8/12
나주	구름많음	5/13	진도	구름많음	8/13
완도	구름많음	9/15	전주	비온뒤 갬	8/12
구례	기름흐리고비	1/14	군산	비온뒤 갬	8/12
강진	구름많음	4/15	남원	비온뒤 갬	8/12
해남	구름많음	5/14	흑산도	구름많음	11/13
장성	기름흐리고비	4/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1.0~2.0
	면바다(서)	서~북서	1.0~2.0	북서~북	1.5~3.0
	면바다(동)	서~북서	1.0~2.0	북서~북	1.5~3.0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서)	남서~서	1.0~2.0	서~북서	1.5~2.5
	면바다(동)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물때

		간조	만조
		06:29 19:07	01:00 13:45
목포			
여수		02:03 14:36	08:35 20:37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2/8	-1/10	3/11	0/12	4/15	7/14	7/11

◇생활지수

	보통
	높음
	나쁨

광주전남대학총장 지역사회 포럼... 13일 DJ센터서

대학 총장들이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 발전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포럼을 연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의 미래 산업과 대학'을 주제로 제1회 광주전남총장 지역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김혁중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총장들을 비롯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16개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발전 위한 거대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는 '지역과 산업에 밀착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김상동 경북대 총장)과, '광주·전남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 (전남대 주정민 기획처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청중의견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만찬시간을 통해 각 기관단체들간의 교류협력과 상생발전도 도모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가 내년 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무려 1080억 원의 예산을 3개 시범지역에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각 부처 지역사업과 연계키로 함에 따라 각 지역들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

병무청, 18~20일 올해 마지막 병역판정검사

병무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검사 대상자인 2000년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자와 2000년 이전 출생자 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검사가 연기됐던 자,

재신체검사자, 모집병 지원자, 입영 후 귀가된 자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일자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